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관련문의 :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대진 과장(2110-5121), 전용옥 사무관(4729)		

"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방안" 상반기중 결론낸다

- 지경부, 산·학·관 합동 T/F를 통해 상용SW 유지보수 개선방안 마련 예정 -

□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중 하나인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지경부·기재부·행안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, 금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예정임

□ 그동안 국내 전문SW 업계는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으로 인해 중견기업·대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SW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

○ 국내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보다 유지보수매출 비중이 낮아 기업의 R&D·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

< 국내 상용SW 유지보수 실태 >

○ 낮은 SW유지보수 예산 책정
- 「'96 행정전산망 지침」('01 폐지)에 의거 관행적으로 취득원가의 8% 적용
  * 해외 주요국가(기업)의 유지보수 요율은 20~30% 수준에서 책정

○ 유지보수대가 지급시기 기준 미흡
- 외산SW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동시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, 국산SW는 강제조항이 없어 수·발주자간 계약여부에 따름

○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개념 혼재
-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 개념으로 인식함에 따라 기업 수익에 악영향

○ 통합유지보수 계약이후 상용 SW별로 유지보수계약 미이행
- SI기업이 하도급 SW기업과 상용SW 유지보수 계약을 미체결하거나, 대가지급이 지연·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통합 유지보수의 폐해 발생

□ 이에 따라,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『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*』 마련을 위한 '상용SW 유지보수 T/F'를 구성하고 '12.1.19(목)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함

*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('11.10.27)에서 확정된 「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」의 후속조치

○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은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T/F에는 기재부·행안부·공정위 등 관계부처, 산업계,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게 되며

○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패키지·공개·보안SW 등 3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

< 상용SW 유지보수 T/F 주요 활동계획 >

- 정보화사업 발주기관, SW기업 등의 애로사항 파악
- 상용SW 유지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제 도출
- 도출된 과제의 개선방안 논의 및 대책 마련

□ 동 T/F 팀장인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"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문제가 국내 SW산업 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한다"고 강조하고,

○ "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·반영하여 유지보수대가가 국내 SW 업계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언급함

붙임 '상용SW 유지보수 T/F' 명단

<붙임>

상용SW 유지보수 T/F 명단

구 분	기관명	부 서 명	이름/직책	비 고
정 부 (8명)	지식경제부	정보통신산업정책관	박일준/국장	팀 장
		소프트웨어산업과	정대진/과장	
	기획재정부	신성장정책과	김재훈/과장	
	행정안전부	정보자원정책과	김길연/과장	
		정부통합전산센터 서비스운영과	이방무/과장	
	국토해양부	정보화통계담당관	강재화/과장	
	공정거래 위원회	건설용역하도급 개선과	인민호/과장	
	조 달 청	정보기술용역과	박영태/과장	
유관기관	정보통신 산업진흥원	SW진흥단	양유길/단장	
산업계 (5명)	소프트웨어 산업협회	산업정책실	박환수/실장	
	(주)데이터 스트림즈		이영상/대표	
	(주)솔트룩스		이경일/대표	
	(주)티맥스 소프트	기술지원본부	김동겸/상무	
	(주)야인 소프트		정철흠/대표	
학 계	서울과학기술 대학교		김우제/교수	